

간질성 폐질환에서 개폐생검의 의의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서필원, 성숙환, 김주현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병력청취, 이학적 검사, 방사선 소견 이외에 폐조직의 현미경적 소견이 차지하는 바가 크다. BAL(Bronchoalveolar lavage), Ga scan, 폐생검의 진단적 가치가 크고, 특히 폐생검의 소견에서 구체적인 제시는 치료방침에 큰 지침이 되며 따라서 마취 및 개흉에 의한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폐생검은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다.

저자들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987년 부터 1992년 까지 시행한 폐생검 중에 간질성 폐질환과 관련된 예증 기록이 충실하고 이용가능하였던 30례에 대하여 폐기능, 방사선 소견, 개폐가 아닌 다른 검사 및 개폐 생검과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개폐생검에 의한 사망은 없었고, 개폐생검에 의해서도 진단이 안된 경우는 2(6.7%)례 있었으며 합병증으로는 1례에서 호흡부전이 있었으나 회복되었다.

결론적으로 개폐생검은 간질성 폐질환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개폐생검의 진단 및 향후치료에 대한 의의를 높게 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